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13



Contents



※ 2026.1.15.(목) 기준(대상 기간 : 2026.01.08.~2026.01.1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환경 공공기관 총동원... 기후재난 대응·탄소중립 속도(2026.01.14)1
- 2500억 탄소중립 지원... 산업부 "기업 참여로 GX 속도"(2026.01.14)1
- 기후·에너지 연구개발에 1,511억원... "탄소중립 전환 속도 낸다"(2026.01.08) 2
- 경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30억 원 예산 확보(2026.01.14) 2
- 탄소중립·스마트도시 한축 세운 광명시 'G-스마트 허브' 개관(2026.01.14) 2
- 충북도, 탄소중립·스마트 기반 축·수산업 육성...681억 원 투입(2026.01.14) 3
- 화력발전 폐쇄 나서는 충남... "탄소중립" "경제충격" 충돌(2026.01.14) 3
- 에너지 자립 마을이 온다...화순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2026.01.14) 3
- 국제정원박람회,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2026.01.13) 4
- 화성시환경재단, 환경교육으로 탄소중립 변화 환경포럼 개최(2026.01.13) 4
- 보은탄소중립실천 작은 기적 일군 이경노 보은군의원(2026.01.13) 5
- "탄소중립 실천" 춘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최대 50만 원 지원(2026.01.13) 5
-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 강화...탄소중립·환경복지 '투트랙'(2026.01.13) 6
- 울진군, 폐자원 교환행사 통해 탄소중립 실천 앞장(2026.01.12) 6

- "지구는 성북구가 지킨다"...탄소중립실천단 길라잡이 양성교육생 모집(2026.01.12)	6
- 포항시, '탄소중립·폐기물 감량'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급 확대(2026.01.12)	7
- 전북도, '전북형 탄소중립 실현' 원년 삼는다(2026.01.09)	7
- 청주시, 무인회수기로 탄소중립 앞장서다(2026.01.09)	8
- 제주특별시, 청정환경 분야 1309억 투입 탄소중립도시 조성(2026.01.08)	8
- 강릉시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정책 강화(2026.01.08)	8

■ AI 분야 9

- 한일 정상회담, AI·지식재산 분야 협력 심화 합의(2026.01.13)	9
-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중심 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2026.01.14)	9
- 국회,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 'AI 특례' 도입 검토(2026.01.14)	10
- 이재명 대통령, 간사이 재일동포에 감사와 사과 표명(2026.01.14)	10
- 국가대표AI 프로젝트, 중국 기술 차용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2026.01.14)	10
- 구미시, AI 혁신 T/F 공식 출범으로 제조 AI 도시 도약 선언(2026.01.13)	10
- 안양시, AI 중심 도시 대전환 본격 추진 선언(2026.01.13)	11
- 한전KDN, AI·SW 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으로 지역 인재 육성(2026.01.13)	11
- 광주 서구,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주제 아카데미 개최(2026.01.14)	11
- 부산,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AI 기술 적용 확대(2026.01.14)	12
- 안양시, AI전략국 신설로 스마트 선도도시 조성 추진(2026.01.14)	12
- 해남군, AI·에너지 투자 유치로 25년 만에 인구 증가 전환(2026.01.14)	12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3

▪ 탄소중립 분야 13

- 동서발전, 전문가 초청 탄소중립 위한 세미나 개최..."관성전원 필수"(2026.01.14) 13
- 4자 협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20억 원 규모 금융지원 나선다(2026.01.14) 13
- [기고] 철도 탄소중립 최전선에서 RE100을 견인한다(2026.01.08) 14

▪ AI 분야 14

- 경남TP 지원 기업, CES 2026 혁신상 수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2026.01.09) 14
- 부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시장 진출 본격화(2026.01.12) 15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협력 MOU 체결(2026.01.14) 15
- 울산TP, 제조 AI 전환으로 '제조 AI 수도' 도약 목표 제시(2026.01.14) 15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6

▪ 탄소중립 분야 16

- "목재 제품은 탄소를 저장하는 산업...국가 탄소중립 실현 열쇠"(2026.01.14) 16
- 코오롱인더, 탄소중립 경영 강화... 구미공장에 2.4MW 태양광 설비 구축(2026.01.14) 16
- 포스코스틸리온, 본사·공장 태양광 설비 구축...탄소중립2050 속도(2026.01.13) 17
- [단독] 구미 탄소중립산단 뚫은 SK...ESS 중앙계약시장 2차 입찰 승부수(2026.01.11) 17

- [보험사 기후금융투자②] '정부 리스크 분담' 없인 탄소중립도 없다(2026.01.09)	18
- 전남대 대학원생, 탄소중립 에너지 공정 해법제시(2026.01.14)	18
- 동신대-나주 대실마을 '탄소중립 상생' 협력(2026.01.12)	18
- 경남정보대, 부울경 중·고교생 '탄소중립 아이디어 챌린지'(2026.01.08)	19
- [임태형의 EU를 향한 시선] '탄소중립' 숨 고르는 EU(2026.01.09)	19
-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에 뿔난 업계..."탄소중립 역행하는 에너지 왜곡 정책" (2026.01.13)	20
- [단독] '미혼부 출생등록', '탄소중립' '낙태죄' 등 위헌법률 28건 손질 급한데..."입법공백" 방치 국회(2026.01.11)	20

■ AI 분야 21

- 동양, 도심형 AI 데이터센터 개발로 인프라 플랫폼 기업 도약(2026.01.14)	21
- 정의선 회장, 중국·미국·인도 순방으로 글로벌 AI 협력 강화(2026.01.14)	21
- 엘리스그룹, 한국어 AI 모델용 고품질 데이터셋 오픈소스 공개(2026.01.14)	21
- AI 칩 스타트업 에치드, 5억 달러 투자 유치로 엔비디아 추격(2026.01.14)	22
- 엑스엘에이트, 스탠포드 바이오 서밋에 AI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 제공(2026.01.14) ...	22
- 현대로템, 로봇·수소사업실 신설로 피지컬 AI 시대 대응 조직개편(2026.01.14)	22
- 광주 AI 기업, CES 2026에서 혁신상 25개 수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2026.01.14)	22
- 이수그룹 회장, CES 2026 방문으로 피지컬 AI 기술 동향 점검(2026.01.14)	23
- 홈플러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지속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2026.01.14)	23
- 부산대, 생성형 AI 활용 심화클래스로 창업기업 역량 강화(2026.01.13)	23
- 목원대 교수, AI 판결 상상을 통해 정의와 책임에 대한 성찰 제시(2026.01.14)	24

- 미국, 엔비디아 AI 칩 H200 중국 수출 규제 완화 조치(2026.01.14)	24
- 스페이스X, 이란에 스타링크 무료 제공으로 <u>소프트파워</u> 역할(2026.01.14)	24
- 주요국, AI·국방 중심 확장재정으로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2026.01.14)	25
- 딥페이크 확산으로 '인지 위기' 시대 도래 경고(2026.01.08)	2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환경 공공기관 총동원 . . . 기후재난 대응·탄소중립 속도(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산하 환경분야 공공기관 11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후재난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점검함.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물재해, 배출권, 자원순환, 국립공원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함. -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디지털트윈과 위성 활용 수자원 관리, 2030년까지 8.5GW 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점검함.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정적 운영과 국제 탄소무역 규제 대응,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주문함. -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운영체계 전환이 핵심 점검 사항이었으며, 매립가스 활용 메탄 감축 사업의 전국 확산 방안도 논의함.
	<p>□ 2500억 탄소중립 지원 . . . 산업부 "기업 참여로 GX 속도"(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총 2500억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함.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어려움 극복에 초점을 맞춤. -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용자사업(1700억원),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원),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원) 등이 포함됨.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도 제작·배포함. - 산업부는 1월 21일 주요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기후·에너지 연구개발에 1,511억원… "탄소중립 전환 속도 낸다"(2026.0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에 총 1,511억원을 투자함. 전년(약 862억원) 대비 75.2% 증액된 규모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등 총 10개 신규 과제를 추진함. - CCU 메가프로젝트는 철강, 발전 산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CCU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실증을 지원하며,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등이 참여해 2030년까지 총 3,806억원이 투입됨. 청정수소 연구와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도 본격화함. - 정부는 CCU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기업 확인 제도와 기술·제품 인증 고시를 마련하고, 촉매·공정 개발에 AI를 활용해 기후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임.
지자체	<p>□ 경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30억 원 예산 확보(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가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자동차 분야) 운영을 위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함. 에너지 분야에 전국 최대 규모인 26억원을 편성해 도내 29만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자동차 분야는 9720대를 모집해 3억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임. - 지난해 에너지 분야에서는 18만 1000여 가구가 참여해 22억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온실가스 약 4만 7000t을 감축함. 자동차 분야에서는 6498명 중 3691명이 2억 6000만원을 지급받아 온실가스 1200t을 줄임. - 에너지 분야 참여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또는 각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자동차 분야는 2~3월 중 별도 모집할 예정임. <p>□ 탄소중립·스마트도시 한축 세운 광명시 'G-스마트 허브' 개관(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시가 14일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B동 28층에 134.81㎡ 규모의 'G-스마트 허브' 개소식과 운영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함. 시민과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함께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 기술과 정책으로 실증·확산하는 협업 공간으로 운영됨. - 센터는 스마트시티즌 교육, 리빙랩 프로그램,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과 협력하는 취·창업 연계 오픈랩 프로그램,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전환 기초 연구 등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추진함. 센터 운영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총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명시는 이 센터를 통해 현장 아이디어가 실제 도시 공간에서 구현되고 그 성과가 취업과 창업,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스마트도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임.
	<p>□ 충북도, 탄소중립·스마트 기반 축·수산업 육성...681억 원 투입(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도가 축·수산 분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4개 분야 91개 사업에 총 681억원을 투입함. 축산정책 분야에 272억원, 친환경 축산 분야에 227억원, 동물복지 분야에 123억원, 해양수산 분야에 59억원을 배정함. - 친환경 축산 분야는 탄소중립 실현과 사료비 절감에 방점을 두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103억원)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 시설·장비 보급 사업(19억원)을 시행함. - 충북도는 제천시와 함께 추진 중인 청풍호 내륙 국가어항 지정에 위한 예비 어항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
	<p>□ 화력발전 폐쇄 나서는 충남... "탄소중립" "경제충격" 충돌(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며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보호 간 논란이 발생함.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지난해 말 태안화력 1호기가 가동을 멈췄으며, 정부는 남은 28기를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퇴역시킬 예정임. - 충남도에 따르면 태안화력 1~8호기가 모두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 손실은 약 7조 8000억원, 정주 인구는 40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충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여야에서 16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임. - 충남도는 2045년까지 무탄소 발전 비중 70%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초과 달성을 목표로, 수소·신재생에너지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p>□ 에너지 자립 마을이 온다...화순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2027년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모를 실시함. 2026년 공모에서는 장흥댐 휴게소 리뉴얼, 마을회관 그린리모델링, 화순 탄소중립 커뮤니티센터 정비 등이 선정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청은 공모 분야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지역발전사업으로 한정해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임. 개별 가구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함께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ESS까지 연계하는 패키지형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심사함. - 사업 규모는 2027년 78억원이며, 중기사업계획(2027~2029년) 기준 총 279억원임. 공모 접수는 3월 27일까지이며 5월 최종 선정 예정임.
	<p>□ 국제정원박람회,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와 조직위원회가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라는 비전 아래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함. 이번 박람회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가 나아가야 할 '탄소저감 실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옴. - 조직위는 친환경·탄소중립형 박람회장 조성과 체류형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 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삼산여천매립장을 정원으로 되살리는 시도는 상징적인 탄소중립 실천 사례로 평가됨. - 박람회장 조성 시 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셔틀버스·전기자전거·수상 교통 연계를 통한 '차 없는 박람회' 실현, 일회용품 없는 박람회 문화 정착 등이 필수 과제로 제시됨.
	<p>□ 화성시환경재단, 환경교육으로 탄소중립 변화 환경포럼 개최(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환경재단이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6 화성특례시 환경포럼을 개최함. 화성특례시 환경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 환경교육과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임. - 주제발표에서는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을, 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재형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2026~2030 화성특례시 환경교육 계획을,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시화호 권역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환경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학교, 시민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환경교육 주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p>□ 보은탄소중립실천 작은 기적 일군 이경노 보은군의원(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은군의회 이경노 의원이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25만 7000원을 지역 내 불우이웃돕기에 전달함.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분리수거 인식개선을 위해 투명페 페트병 수집을 통한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수퍼빈 무인회수기 설치를 제안함. - 보은군은 지난해 8월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 수퍼빈 무인회수기를 처음 설치했으며, 이 의원은 자전거를 타며 페 페트병 수거, 유치원에 홍보물 전달, 노인대학 등에 참여 유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 - 이 같은 노력으로 페트병 수집량이 2024년 13.11톤에서 2025년 23톤으로 75.43% 증가함. 수퍼빈 관계자는 “보은처럼 참여율이 급상승한 사례는 드문 일”이라고 평가함.
	<p>□ "탄소중립 실천" 춘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최대 50만 원 지원(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가 교통수단 다양화와 친환경 이동 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시민 100명에게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함.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1가구당 1명만 지원됨. - 지원 금액은 구입비의 50%(최대 50만원)이며,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PAS(페달보조) 방식 제품으로 지역 내 판매점에서 구입해야 함. 스로틀 방식 또는 PAS·스로틀 겸용 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은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춘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추첨은 2월 10일 진행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 강화...탄소중립·환경복지 '투트랙'(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가 민생 안정과 탄소중립, 환경복지 실현을 목표로 환경정책 전반을 강화함. 지난해 원주천담 안정적 운영, 민간중앙근린공원 준공, 중앙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치악산 바람길숲' 전 구간 개통,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환경교육도시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둠. - 앞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아우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원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와 홍보관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인식을 확산할 계획임. 성황림 일대에서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폐교를 생태 체험 교육 공간으로 재구성함. - 환경복지 강화를 위해 기후 위기 취약계층 대상 열 차단 페인트 도장 사업, 종량제봉투 디자인 변경, 악취관리지역 정기 점검 등을 추진함.
	<p>□ 울진군, 폐자원 교환행사 통해 탄소중립 실천 앞장(2026.0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진군이 2026년에도 '폐자원 교환행사'를 이어가며 군민 참여형 순환경제 실천 사업을 확대함. 2025년에는 총 1,849kg의 폐자원을 수거하고 약 4,253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성과를 거둠. - 교환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으로, 폐건전지 20개는 새 건전지 1세트로, 종이팩은 크기에 따라 1040매를 모으면 화장지 1롤로, 투명페트병 2040개는 동일한 생활용품으로 교환 가능함. - 울진군은 이번 교환행사를 통해 군민의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임.
	<p>□ "지구는 성북구가 지킨다"...탄소중립실천단 길라잡이 양성교육생 모집(2026.0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성북구가 1월 30일까지 '탄소중립실천단 길라잡이 양성교육' 교육생을 모집함. 교육은 주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이끌어갈 환경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함. - 수업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이해, 에너지 절약의 이해, 환경교육 교구의 활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과 환경교육 실습 등으로 구성됨. 교육은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2회 총 8회에 걸쳐 진행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 후 선발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실천단 길라잡이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론교육은 '성북탄소중립배움터'에서 진행됨.
	<p>□ 포항시, '탄소중립·폐기물 감량'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급 확대(2026.0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함. 신청은 포항시민(세대주)을 대상으로 2월 2일까지 시청 자원순환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함. -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세대원 수, 포항시 연속 거주 기간, 다자녀 가구, 주거 형태, 저소득 가구, 장애인 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300세대를 선정함. 감량기 구입가의 50%(최대 30만원 한도)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함. - 지원가능 기기는 공인기관 품질인증과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가열에 의한 건조' 및 '발효 또는 발효건조' 방식의 제품이며, 주방용 오물 분쇄기 방식은 지원에서 제외됨.
	<p>□ 전북도, '전북형 탄소중립 실현' 원년 삼는다(2026.01.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를 '전북형 탄소중립 실현 원년'으로 삼아 기후·물관리·산림 등 환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함. 도 기본계획에 담긴 7개 부문 72개 과제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3% 감축을 위해 올해 23% 감축 달성을 중간 목표로 설정함. -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강화, 저탄소 식생활 확산, 다회용기 순환체계 확산을 통한 일회용품 400만 개 감축 목표 등을 추진함.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2027년 추진을 목표로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추진함. - 전북환경보건센터 지속 운영, 친환경차 6002대 보급, 수소충전소 3곳 추가 확충, 이차전지 폐수와 화학물질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 강화 등도 추진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청주시, 무인회수기로 탄소중립 앞장서다(2026.01.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재활용자원 무인회수기를 통해 29.3톤의 자원을 수거하며 탄소 72.3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둠. 이는 승용차 약 3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을 상쇄하는 수준이며, 30년생 소나무 1만 962그루를 식재한 것과 같은 효과임. - 청주시는 2024년 최초 설치 이후 지역 내 주요 거점에 투명페트병 전용 회수기 11대와 캔류 전용 회수기 3대 등 총 14대를 운영해옴. 지난해 수거된 재활용 자원은 투명페트병 24,840kg, 캔류 4,529kg으로 총 29,369kg에 달함. - 시는 회수된 자원을 고품질 의류 원사나 고순도 알루미늄 등으로 재탄생시켜 자원 순환 경제의 핵심 축으로 활용할 계획임.
	<p>□ 제주특별시, 청정환경 분야 1309억 투입 탄소중립도시 조성(2026.0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시가 2026년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정환경 분야에 총 1,3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기후환경 분야 174억 9000만원, 환경오염 관리 분야 53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분야 757억 6000만원, 공원녹지 분야 293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함.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정비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36억원, 탄소포인트제·기후취약계층지원에 9억 6000만원, 재활용 생태계 구축에 3억 9000만원을 투입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830대)와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440동)에 49억 2000만원을 투입함. -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 야생동물 신고·영업 허가제 시행,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납) 환경안전 관리기준 강화(600mg/kg→90mg/kg), 4월부터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 자원화시설 반입 가능 등이 있음.
	<p>□ 강릉시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정책 강화(2026.0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정책 확대에 나섬.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다자녀 세대까지 확대됨. 신청은 6월경부터 받을 예정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총 사업비 30억 5000만원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섬. 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컨소시엄 업체 5개사와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76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함. - 도시가스 지원율이 70%에서 90%(최대 300만원)로 상향 적용되며, 노후 보안등 약 400개를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2030년까지 보안등 LED 전환율 62% 달성을 목표로 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한일 정상회담, AI·지식재산 분야 협력 심화 합의(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4분간 정상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검사 추진에 합의하며 과거사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 도출 - 양 정상은 AI와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 지속에 합의하고 초국가 범죄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협의체 참여 확정 -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북정책에서 긴밀한 공조 지속 약속
	<p>□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중심 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가 업무보고에서 KAIST, GIST, DGIST,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중심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 -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국내 우주 기술 수출을 위해 발사 성공률 90% 이상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우주항공청, 항우연, 민간기업 간 역할 정립 강조 - 모든 과기원에 AI 단과대학이 설치된 상황에서 각 기관별 전문 분야에 집중연구하는 전략과 중점대학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성 언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국회, 자율주행 데이터 활용 'AI 특례' 도입 검토(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세미나가 개최되어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향 논의 - 개인정보위가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 신기술 분야에 한해 고품질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 테슬라 FSD 서비스의 국내 누적 주행 데이터가 수개월 만에 100만km를 돌파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 제약으로 경쟁력 격차 심화 <p>□ 이재명 대통령, 간사이 재일동포에 감사와 사과 표명(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재일동포의 헌신과 희생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오늘을 세웠다고 감사 표명 - 제주 4·3 유가족, 우토로 마을 주민,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들에게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와 상처를 입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 전달 - 모국 방문 시 국적이나 출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실용외교로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 <p>□ 국가대표AI 프로젝트, 중국 기술 차용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하루 앞두고 참여 기업 절반에 중국 기술 차용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성 논란 발생 - 정부가 명확한 '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개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문가 평가 존중'만 반복하며 독자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 지속 - AI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에서 기술 독자성 검증 체계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지자체	<p>□ 구미시, AI 혁신 T/F 공식 출범으로 제조 AI 도시 도약 선언(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미시가 김장호 시장 주재로 AI 혁신 T/F를 공식 출범하고 2026년을 'AI 대전환(AX)'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시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혁신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AI·AX 대전환' 기조에 선제 대응하여 AI 정책 지원반, AI 산업 육성반, AI 인프라 구축반, AI 인재 육성반 등 4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 가동 - 삼성SDS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기반으로 아시아 거점 데이터 센터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로의 도약 추진
	<p>□ 안양시, AI 중심 도시 대전환 본격 추진 선언(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호 안양시장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을 올해 시정방향으로 제시 - 전 공직자에게 AI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도 AI 교육을 확대하여 AI 순기능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민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 - K 37+ 벨트를 중심으로 AI 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모이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 발표
	<p>□ 한전KDN, AI·SW 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으로 지역 인재 육성(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KDN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에서 '2026년 AI·SW 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인재 양성 본격화 - 전라남도교육청과 국립순천대 SW중심대학사업단이 함께하는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3주간 90시간 과정의 블록코딩, 피지컬 컴퓨팅, 교수법 등 교육 진행 - 수료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찾아가는 로봇코딩 교육과 도서 지역 중·고교 AI 코딩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으로 지역 상생 모범 사례 창출 <p>□ 광주 서구, 'AI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주제 아카데미 개최(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시 서구가 서구청 들불홀에서 구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제126회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추진 - 인지과학 분야 전문가 김상균 교수가 AI가 일상과 산업 전반에 가져올 변화를 짚어보고 인간이 갖춰야 할 태도와 핵심 역량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 진행 -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AI를 도구로서 지혜롭게 활용하고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 조언으로 참석자들의 큰 공감 획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부산, 해양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AI 기술 적용 확대(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 조선, 에너지 등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양IT 전문업체가 기술 고도화에 매진하는 추세 - 부산 소나테크에서 연구원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음파탐지기술 테스트를 진행하며 해양 분야 AI 적용 사례 확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부산이 해양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
	<p>□ 안양시, AI전략국 신설로 스마트 선도도시 조성 추진(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가 전 부서와 공공기관,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시대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 논의 -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AI전략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정책 기반을 확립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AI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 -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서울서부선과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등 신규 철도노선 확충으로 미래 성장 거점도시로의 도약 추진
	<p>□ 해남군, AI·에너지 투자 유치로 25년 만에 인구 증가 전환(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의 인구 감소세가 25년여 만에 멈추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월 대비 7명이 늘어나는 반전세로 전환되어 지역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 - 삼성SDS 국가AI컴퓨팅센터와 LS전선 해상풍력 전용항만 구축 등 AI·에너지 개발 호재가 산이면과 화원면의 인구 증가를 견인 -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화원산단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동서발전, 전문가 초청 탄소중립 위한 세미나 개최..."관성전원 필수"(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동서발전이 13일 울산 본사에서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초청해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동서발전의 전원개발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급변하는 전력시장 환경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전원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됨. - 전영환 교수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안정적 계통운전을 위해 무탄소 연료 전환, 양수발전 등 관성전원은 필수적"이라고 제언함. 지역차등 요금제(LMP)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산지소 시스템 활성화와 분산전원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함. -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정부의 미래 에너지믹스 목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전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2035 NDC 달성을 선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힘.
	<p>□ 4자 협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20억 원 규모 금융지원 나선다(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해 충남도, 농협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와 14일 4자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 충남도와 농협은행은 각 5억원을 출연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는 지원 대상을 발굴하며, 충남신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12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해 도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회용품을 근절한 업체를 지원함. - 협약보증은 전액보증(100%), 보증료 우대 적용(0.9% 이내) 및 저금리 자금 등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함. 해당 상품은 20일부터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기고] 철도 탄소중립 최전선에서 RE100을 견인한다(2026.0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이 지난해 8월 'RE100 추진단'을 출범하고 'K-RE100 이행 종합계획'을 수립함. 발전소를 제외한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연간 약 150만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코레일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사용량 절감, 국가 탄소배출 감축 기여를 주요 과제로 선정함. - 철도 유희부지의 '발전소화' 추진으로 양면형 방음벽 태양광, 주차장·차량기지 지붕 등을 에너지 거점화하는 발전 전략을 세움. 차세대 고속열차(EMU-370) 활용, 2028년 상용화 목표 수소 전기동차 개발에 맞춰 노후 디젤 열차를 수소 열차로 전환할 계획임. - '에너지 트레인' 구상으로 호남의 잉여 전력을 화물열차 배터리에 담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달리는 송전망' 개념을 제시함. 20칸 화물열차로 1회 운행 시 약 200MWh의 전력 수송이 가능함.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p>□ 경남TP 지원 기업, CES 2026 혁신상 수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2026.01.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에 참여한 모빌린트와 인텔리빅스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 인정 - 모빌린트는 국산 AI 반도체(NPU)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엣지 AI 가속 기술로 수상하여 재난·안전·영상분석 분야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상용화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텔리빅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과 VLM을 결합한 차세대 AI 관제 기술로 오탐을 줄이고 관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
	<p>□ 부산,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시장 진출 본격화(2026.0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이전과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추진으로 부산 조선·해양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 상승 -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월드클래스 해양AI허브' 조성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웨이브(WAVE)'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핵심 사업 기획 착수 - HJ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의 마지막 문턱인 '항만보안평가'를 통과하여 미 해군 전투함 MRO 진출을 위한 최종 협약 눈앞에 도달
	<p>□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협력 MOU 체결(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제이엠로보틱스, 부산과학기술자문단과 '부산 피지컬 AI 생태계 및 AX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각 기관의 기술력, 인프라,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부산형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로봇 활용 실습형 AI·SW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대학·특성화고 연계 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으로 민간 기술력과 전문가 집단의 지식 결합
	<p>□ 울산TP, 제조 AI 전환으로 '제조 AI 수도' 도약 목표 제시(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테크노파크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 제조업의 데이터·AI 기반 구축에 주력 - EU의 디지털 제품여권(DPP)과 배터리 패스포트(BP) 등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데이터 주권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 독일의 Manufacturing-X와 유사한 '울산형 Manufacturing-X(Ulsan-AX)' 구축으로 울산이 '산업수도'를 넘어 '제조 AI 수도'로 자리 잡을 것을 목표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목재 제품은 탄소를 저장하는 산업...국가 탄소중립 실현 열쇠"(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MDF 제조 1위 기업 (주)유니드비티플러스가 '탄소 저장 효과를 갖춘 목재산업의 국가적 활용'이라는 의제를 제시함. 한상준 대표는 MDF는 목재 섬유를 압축·성형해 만드는 제품으로, 목재를 제품으로 만들면 탄소가 수십 년간 고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함. - 서울대 연구팀의 생애주기평가(LCA)에 따르면 MDF 1㎥당 약 0.8톤의 탄소 저장 효과가 있으며, 국내 MDF 산업 전체 생산량 누적 계산 시 지난 수십 년간 저장된 탄소는 650만톤 이상임. 유럽은 목재 건축·제품 산업을 탄소 감축 기여 부문으로 분류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산정 기준이 없음. - 회사는 탄소 저장 공식 산정 기준 마련, 저장 실적 인증·관리 제도 신설, 기업 실적의 국가 NDC 반영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하며, 피해목 활용 우선순위로 MDF 등 목재 재활용 산업, 건축·가공 산업, 발전·에너지 순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p>□ 코오롱인더, 탄소중립 경영 강화... 구미공장에 2.4MW 태양광 설비 구축(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구미공장에 2.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을 완료함. 지난해 3월 GS에너지와 '탄소중립용 재생에너지 전력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 착공에 돌입함. - 도입한 태양광 설비는 연간 318만kWh 전력을 생산하며 145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음. 설치에는 구미공장 지붕 및 주차장 상부 구조물 등 유휴 공간이 활용되었으며, 주차장 설비는 발전 기능과 그늘막 역할을 겸함.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11월 한국ESG기준원 기업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 12월에는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 부문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포스코스틸리온, 본사·공장 태양광 설비 구축…탄소중립2050 속도(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스틸리온이 본사와 포항 도금공장, 컬러공장 등 주요 사업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함. 태양광 패널 설치에 필요한 지지대와 케이블 트레이 등에 포스코 고유의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PosMAC 3.0 제품을 적용함. - 본사 지붕을 시작으로 도금공장·컬러공장 등 약 2만75㎡에 이르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해 공장운영에 활용하기로 함. 이를 통해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6.0~6.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함. - 천시열 사장은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목표 달성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힘.
	<p>□ [단독] 구미 탄소중립산단 뚫은 SK…ESS 중앙계약시장 2차 입찰 승부수(2026.0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온이 정부 주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ESS 시장에서 연이은 수주 성과를 거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구미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사업'에 SK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사용됨. 60MWh 규모 LFP 파우치셀을 공급함. -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는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300억원이 투자됨. 세부 사업으로 30MW급 태양광 발전소, 60MWh 규모 ESS 및 지능형 전력거래시스템 도입,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됨. - SK온은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구축사업'에도 LFP 배터리 공급이 확정되었으며, ESS 중앙계약시장 2차 입찰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음. 서산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3GWh 규모 LFP 배터리 연산 능력을 갖추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보험사 기후금융투자②] '정부 리스크 분담' 없인 탄소중립도 없다(2026.01.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류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으나, 녹색 금융의 엔진은 식어가고 있음.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자들은 “착한 투자가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재생에너지 인프라나 수소 저장 기술 같은 녹색 프로젝트의 위험 대비 수익률 불균형을 지적함. - 일본의 'GX 경제이행채'는 20조 엔 규모 재원을 미리 확보해 장기 투자에 필요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 유럽의 'InvestEU'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자의 손실을 먼저 떠안아 주는 'First-loss(우선 손실 흡수)' 보증을 제공해 무려 14.8배의 승수 효과를 거둠. - 한국형 기후금융 모델은 예산의 보증화를 통한 민간 자본 승수 효과, K-ICS 내 녹색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 하향 조정, 일본 GX
대학교	<p>□ 전남대 대학원생, 탄소중립 에너지 공정 해법제시(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 김수지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생(지도교수 고창현)이 탄소중립형 에너지 공정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음. 바이오가스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동시에 활용해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 설계 전략을 제시함. - 바이오가스와 CCU 공정에서 회수된 이산화탄소를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니켈(Ni) 기반 촉매 구조를 개발함. 촉매 활성 금속을 입자 표면에 선택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반응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함. - 이번 연구는 SCI(E) 국제저명학술지인 'Bioresource Technology'(IF=9.0, JCR 상위 2.5%)에 발표됨. 김수지 학생은 석사과정 4학기 동안 제1저자로 3편, 공동저자로 4편 등 총 7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함. <p>□ 동신대-나주 대실마을 '탄소중립 상생' 협력(2026.0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신대 RISE사업단과 나주시 봉황면 대실마을이 지역 혁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섬. 대실마을복지영농조합법인과 지역 문제 해결 및 에너지자립 마을 리빙랩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RISE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지역문제 해결을 교육·연구·실증으로 연계 추진함. 학생 참여형 교육·실습 프로젝트 운영, 대학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협력체계 실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강대홍 RISE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지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p>□ 경남정보대, 부울경 중·고교생 '탄소중립 아이디어 챌린지'(2026.0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정보대학교가 5일 부울경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IT 넷제로(Net-Zero) 지구:ON 탄소:OFF 아이디어 챌린지'를 개최함.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주관함. - 대상에 테레사여고 허윤설 학생, 금상에 금성고 이승환 학생, 은상에 동아고 김승주 학생, 동상에 부산서여고 김지담 학생, 장려상에 동아고 송지후·서준호 학생이 각각 선정됨. 학생들은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 친환경 기술 등을 주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함. - 김봉수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은 “청소년들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며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함.
해외	<p>□ [임태형의 EU를 향한 시선] '탄소중립' 숨 고르는 EU(2026.01.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폰테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2기는 탄소중립 추진 속도를 조절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보라는 현실적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EU집행위는 8개 옴니버스 패키지를 제안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에 나섬. - 공급망 실사 지침(CSDDD)과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시행 시기를 늦추고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함. 2035년 승용차·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완화하며 내연기관 차량의 예외를 검토하는 '자동차 패키지'를 발표함. - EU는 '바이 유러피언' 기조로 핵심원자재법, 청정산업법, 유럽 방산 프로그램 등에 유럽산 제품 우선 구매 조항을 도입함. 중국발 공급 과잉과 보조금에 따른 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공정 경쟁 차단을 위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5.3%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적용 중임.</p>
기타	<p>□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에 뿔난 업계..."탄소중립 역행하는 에너지 왜곡 정책"(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 하자 한국지열협회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정책 중단을 요구함. 13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부 앞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집회가 열림. - 관련 업계는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이용 설비일 뿐,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다”고 강조함. “화력발전 위주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함. - 업계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 법안은 김성환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인데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위임 입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함.
	<p>□ [단독] '미혼부 출생등록', '탄소중립' '낙태죄' 등 위헌법률 28건 손질 급한데... '입법공백' 방치 국회(2026.0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28건(헌법불합치 12건·위헌 16건)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입법공백이 지속됨. 헌법불합치 법률 중 8건이 평균 1663일가량 시한을 넘긴 상태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도 2월 28일까지로 코앞에 다가옴. - 2024년 현재는 '20312049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경로 미규정'을 문제 삼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NDC를 내놨으나 위헌성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상반기 공론화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입법 시한 경과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사회는 국제 기준과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최소 61%의 감축 목표 수립을 요구해옴.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동양, 도심형 AI 데이터센터 개발로 인프라 플랫폼 기업 도약(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진그룹 계열사 동양이 AI·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를 장기적 산업 구조 변화로 인식하고 도심형 AI 데이터센터 개발 본격 추진 - 부천 삼정동에 대지면적 3593㎡, 연면적 10,736㎡ 규모의 약 9.8MW급 AI 연산 특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수도권 거점형 인프라 표준 모델로 활용 예정 - 인천 구월동 AI 데이터센터를 거점형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헤드쿼터로 설계하여 서울 주요 업무권역에 전송 지연 없는 실시간 AI 서비스 제공 목표
	<p>☐ 정의선 회장, 중국·미국·인도 순방으로 글로벌 AI 협력 강화(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중국, 미국, 인도를 잇달아 방문하며 수소, AI,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기회를 직접 모색하는 글로벌 광폭 행보 전개 - CES 2026 현장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3개월 만에 재회하여 '퍼지컬 AI' 개발 협력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 상승, 퀄컴 등 빅테크 경영진과도 면담 - 인도 현대차·기아 공장을 방문하여 150만 대 생산 체제를 점검하고 '홈브랜드' 전략으로 인도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 제시
	<p>☐ 엘리스그룹, 한국어 AI 모델용 고품질 데이터셋 오픈소스 공개(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스그룹이 한국어 AI 모델 학습에 적합한 고품질 교육용 데이터셋 2종을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하여 국내외 AI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한국어 파인웹 교육 데이터셋 데모'는 약 1900억 토큰 규모의 대형 텍스트 데이터셋 중 5%를 샘플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대규모 학습 전 검증 용도로 제공 - 실제 모델 학습과 서비스 환경에서 검증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자, 개발자,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데이터 생태계 구축 기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AI 칩 스타트업 에치드, 5억 달러 투자 유치로 엔비디아 추격(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칩 스타트업 에치드가 새로운 투자 라운드에서 약 5억 달러를 조달하며 기업 가치 약 50억 달러 평가를 받아 엔비디아와의 경쟁에 본격 나서 - 투자사 스트라이프스가 주도하고 억만장자 기업가 피터 티엘이 참여하였으며 포지티브 셉과 리빗 캐피털도 라운드에 합류 - '소후(Sohu)'라는 AI 칩을 개발하여 폭증하는 AI 연산 수요를 겨냥하고 TSMC와 협력하여 칩 생산을 추진하며 누적 투자금 약 10억 달러에 근접
	<p>□ 엑스엘에이트, 스탠포드 바이오 서밋에 AI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 제공(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통번역 스타트업 엑스엘에이트가 미국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린 'K-BioX ABDD 서밋 2026'에 2년 연속 공식 AI 통번역 파트너로 참여 -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전문 용어를 AI에 사전 학습시키고 '자동 청킹' 기술을 적용하여 번역 정확도와 가독성을 향상시킨 이벤트캣 솔루션 제공 - 50개 국어를 지원하는 실시간 고품질 통번역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00여개 기업·기관에서 도입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p>□ 현대로템, 로봇·수소사업실 신설로 피지컬 AI 시대 대응 조직개편(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로템이 신사업 강화와 미래 피지컬 AI 시대 대응을 위해 로봇&수소사업실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방산·철도·플랜트 전 영역에 혁신 기술 접목 추진 - 방산 부문에서 차세대 전차와 장갑차에 AI 기반 자율주행·군집 제어 능력을 탑재하고 35t급 메탄 엔진 기술 개발에 국내 최초로 착수 - AX추진센터와 AI로봇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186개팀에서 176개팀으로 슬림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 제고
	<p>□ 광주 AI 기업, CES 2026에서 혁신상 25개 수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AICA 지원을 받은 AI 기업 20개사가 CES 2026에서 혁신상 25개를 수상하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광주 AI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입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션에이, 엘비에스테크, 망고슬래브 등 3개 기업이 각 분야 최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 최상위권 기술 수준 증명 - AICA 지원 기업들의 CES 혁신상 수상 실적이 2023년 1건에서 2026년 25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헬스케어, 콘텐츠, 모빌리티 분야 기술력 인정
	<p>□ 이수그룹 회장, CES 2026 방문으로 피지컬 AI 기술 동향 점검(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이 CES 2026을 방문하여 '피지컬 AI'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점검하고 그룹사 임원들과 함께 사업 기회 모색 - AI를 중심으로 최신 기술 동향을 살피며 화학·IT·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 AI를 접목하는 전략 추진 - 이수페타시스가 AI 산업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공장 증설 등 생산력 확대를 통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기술 경쟁력 입증
	<p>□ 홈플러스, AI 물가안정 프로젝트 지속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플러스가 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2022년부터 4년째 연중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지속하며 고객들의 장보기 부담 완화에 노력 - 시즌 적기에 수요가 높은 상품을 AI로 선별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쇼핑 편의 강화 - 매주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선별해 최적의 가격에 할인 판매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추가 혜택 제공
대학교	<p>□ 부산대, 생성형 AI 활용 심화클래스로 창업기업 역량 강화(2026.0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이 AX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심화클래스'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개최 - ChatGPT와 Copilot 등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생산물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도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rplexity를 활용한 트렌드 조사 자동화부터 데이터 분석, 기획서 작성, PPT 제작 까지 전 업무 과정을 생성형 AI로 자동화하는 실무 중심 교육 진행
	<p>□ 목원대 교수, AI 판결 상상을 통해 정의와 책임에 대한 성찰 제시(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진호 목원대 겸임교수가 정치인 재판 지연 문제와 AI 판결에 대한 상상을 다룬 칼럼을 통해 정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 제기 - AI 판결을 상상하는 이유가 기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 정의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판결 지연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 - 국민이 원하는 것은 AI의 냉정함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감이며 정의는 타이밍을 잃는 순간 의미를 잃는다는 통찰 제시
해외	<p>□ 미국, 엔비디아 AI 칩 H200 중국 수출 규제 완화 조치(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엔비디아 GPU H200 칩의 중국 수출 허가심사 정책을 기존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하는 규칙 개정 완료 - 중국 정부는 화웨이, 캄브리콘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보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H200 칩 수입을 대학 연구개발 랩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 - 기술기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라는 모호한 지침을 통보하여 향후 미·중 관계 개선 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
	<p>□ 스페이스X, 이란에 스타링크 무료 제공으로 소프트파워 역할(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시위와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는 이란 내 사용자에게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 -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에게 항의 행동 지속을 촉구하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통신 복구 역할을 요청하며 미 정부 차원의 외교·안보 수단 활용 움직임 시사 -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등 지정학적 분쟁 지역에서 제공되며 세계 최고 부호의 소프트 파워 도구로 진화하는 양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p>□ 주요국, AI·국방 중심 확장재정으로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2026.0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이 AI 등 첨단산업과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 동력 확보와 안보 강화에 집중 -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5년간 5000억 달러 투입 예정이며 일본은 AI·반도체 예산을 전년 대비 272% 급증한 1조2000억 엔으로 편성 - 한국도 R&D 예산을 19.9% 증가한 35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한 산업 대전환과 신산업 혁신에 적극 투자
기타	<p>□ 딥페이크 확산으로 '인지 위기' 시대 도래 경고(2026.01.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가 AI 생성 기술 대중화로 딥페이크 문제가 심화되면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인지 위기(Crisis of knowing)' 도래 경고 - 딥페이크 영상이 2023년 50만건에서 작년 800만건으로 폭증한 가운데 영상의 AI 조작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는 비율이 0.1%에 불과 - 딜로이트 금융서비스센터 전망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기 손실액이 2024년 123억 달러에서 2027년 400억 달러로 증가 예상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